

국토교통부, “청년 건축인과의 소통·지원을 확대해 갈 것” - 12일 프리츠커상 수상자 야마모토 리켄과 국내 청년 건축인의 만남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9월 12일 오전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‘야마모토 리켄*-청년 건축인** 타운홀 미팅’을 개최하였다.

* '24년 프리츠커상 수상자, 건축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성·지역성 제고 강조

** 국내 건축전공 대학생, 신진 건축사 및 건축사보 등 청년 건축인 20명

○ 국토교통부는 청년 건축인 육성을 위해 ‘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’, ‘선배 건축가와의 대화’, ‘우수 건축물 현장 답사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·운영하고 있다.

* 국내 청년 건축인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및 건축활동 지원(19년~)

○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금일 행사는 202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야마모토 리켄과 우리 청년 건축인들과의 대화의 장으로 마련되었다.

□ 야마모토 리켄은 오늘 행사에서 건축의 공공성과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.

○ 아울러,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연결하고 개인들간의 정체성, 경제적 능력 등의 차이를 넘어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을 위한 건축인들의 역할에 대해 역설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“청년 건축인들의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고민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고, 앞으로 건축의 발전을 위한 청년 건축인들의 다양한 의견제시를 당부”하며,

○ “국토교통부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,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국토교통부는 미래 건축 발전의 주역인 청년 건축인들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, 청년 건축인 역량 향상과 다양한 정책을 발굴·지원해나갈 계획이다.

2024. 9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